

올림픽을 책임는 축제

金治洙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문학평론가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 여행을 떠났고, 서울이 텅 비었다는 과장 섞인 보도가 휴가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처서를 전후로 해서 한풀 꺾인 것 같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대단히 기분 좋다. 바야흐로 가을이 오고 있다. 이제 여름날의 들뜬 휴가 분위기도 벗어나고 일도 좀 의욕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사정은 그와 전혀 다르다.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모든 마스크는 가라앉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풀게 하고 있다. 우리 생애에 단 한번의 올림픽,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열리는 서울 올림픽은 역사적인 일이다. 세계의 백 오십 몇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제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더 잘 알고 세계가 우리를 더 잘 아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분단과 외교,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어주지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책이 없는 계절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무더위와 휴가철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축제의 분위기가 겹쳐오는 것은 금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책이 없는 축제의 계절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쟁도 중단하고 노동쟁의도 연기하고 학교도 쉬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국민이 그 축제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 모두 올림픽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혼자서 조용히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산업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 축제를 즐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의 존재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책의 출판이나 독서가 중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비가 책을 사흘 동안 읽지 않으면 입에 쉬가 슬게 되는 것처럼 출판이나 독서가 축제의 물결에 밀려나면 우리의 정신에는 녹이 쓴다. 외국에서는 휴가철에 책이 더 많이 팔린다. 휴가철에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휴가는 과도된 관광문화 때문에 시끄럽고 번잡하다. 올림픽을 앞둔 축제 분위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손님을 맞기 위해 지나치게 단장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능력을 과대선전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축제를 왜곡시킨다. 모든 매체가 올림픽의 축제만을 전달하다가 이번 가을에 도서전시회나 독서주간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제 펜클럽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정신의 올림픽이 결여되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면 책의 출판이나 독서와 관계된 문화행사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조용히 독서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책을 읽을 권리를 인정하는 풍토가 아쉽다.

한권의 책을 쓰는 것이 하나의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 의미있고 한권의 독서가 스포츠의 관람 이상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올림픽의 참뜻이 살아난다. 올림픽은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거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초점	2	월북작가 작품집, 얼마나 나와 있나
르포	4	문화의 터발 일구는 다양한 쟁기질 —지역출판운동의 현장 ③ 大邱
특집	6	“당신의 포켓에 한권의 문고본을” —6대 종합문고의 ‘베스트셀러 10’
	7	잊혀지고 있는 文庫本文化/李重漢
	8	우리나라 문고의 내력/全泳杓
	9	대중을 향해 열린 책/김태준
서평	10	「찰스 다윈」—송상용 「과학자와 기독교」—張會翼
	11	「채광석전집」I·II—李在賢 「비단비행기」—장석주
	12	「人間에게 未來는 있는가」—황문수 「한국문학과 기호학」—金仁煥
	13	「가진 자와 못가진 자」—任在慶 「司馬遷의 歷史認識」—李公範
저자 인터뷰	14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의 옛책 —「日本訪書志」 펴낸 沈暉俊교수
출판화제	15	잡지문화에 새 바람 일으키는 출판사들
문제작의 주변	16	인간의지와 이데올로기간의 상충/박형규 —리바코프의 「아르바트의 아이들」을 읽고
	17	공간과 시간 그리고 4차원의 세계/閔英基 —스티븐 호킹의 「時間의 歷史」를 읽고
책과 이미지	18	예술중개 마당으로서의 책/鄭鎮國
작품구상	19	「긴 침묵의 낮은 외침」/金源一
지금 독서중	20	박희진의 시집 「散花歌」—「불교문학」 편집장 金泓星씨 李昊宰의 「새로운 韓民族外交」—유네스코 韓委 崔亨根씨 21 李建榮의 「살고 싶은 집 견고 싶은 거리」-교사 朴鎔子씨
지금 제작중	21	「한국건축총서」 시리즈 전10권—技文堂
교양논단	22	새로운 사회를 예견하는 ‘미래학’/김형국
컬러	24	물리학자 金貞欽교수의 書架
해외정보	26	‘책의 올림픽’ 국제도서전시회
세계의 출판	28	만화의 ‘초강대국’ 일본의 실상
	30	어린이책 들춰보기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화제의 책/이색출판/ 사진집
	42	새로 나온 詩集
	43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48	독서퍼즐/ 정기구독 안내